



## 만혼 · 비혼자의 성별 특성과 저출산

이정택 연구위원, 오승연 연구위원

■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자와 혼인하는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유지되면서 여성은 상위층일수록 남성은 하위층일수록 결혼하기 힘든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만혼 · 비혼 현상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측면이 크다면 기존의 출산 정책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초혼연령과 30대 비혼율<sup>1)</sup>의 급격한 증가가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저출산 대책이 기혼여성의 출산력 제고에서 만혼 · 비혼 해소를 위한 고용 및 주거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음.

- 여성의 경우 1995년 25.3세에서 2015년 29.9세로 초혼연령이 상승하였고, 남성의 경우 28.4세에서 32.6세로 상승함.
- 30~34세의 비혼율은 2010년 38.5%로 1995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35~39세의 미혼율은 1995년 4.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19.1%로 증가함.<sup>2)</sup>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지원 확대, 일 · 가정 양립 제도 도입과 같은 기혼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만혼 · 비혼의 해결을 위해 일자리 · 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 일자리 · 주거 문제 외에 결혼시장에서 남고여저 구성비의 변화는 비혼 · 만혼 증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임.

-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및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데 반해, 결혼문화는 여전히 전통적인 남고여저<sup>3)</sup>가 유지되면서 여성은 상위층일수록 남성은 하위층일수록

1) 비혼율 = (해당집단 미혼자 수 ÷ 해당집단인구) × 100

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여성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우월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남성과 혼인하는 현상.

결혼하기 힘든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sup>4)</sup>

■ 실제로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남녀의 비혼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혼율이 높아짐(표 1) 참조).

- 35~39세 남성과 여성의 비혼율을 보면 남성은 고졸(31.8%)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대학원 박사과정(28.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의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적합한 남자를 찾는 시간이 장기화 됨.
- 고학력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소득 일자리를 여성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과거보다 고소득 일자리를 차지한 남성들의 숫자는 그만큼 감소함.

〈표 1〉 남녀의 연령·교육수준별 비혼율

구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35~39세	남성	31.8	25.2	22.7	14.4	13.7
	여성	9.8	12.2	15.1	21.9	28.9
40~44세	남성	17.6	11.5	9.8	6.1	5.2
	여성	4.5	6.8	8.0	14.6	20.4
45~49세	남성	8.0	5.1	4.2	2.7	2.3
	여성	2.5	4.5	5.2	10.0	16.9

자료: 이창순(2012), 「KOSIS 혼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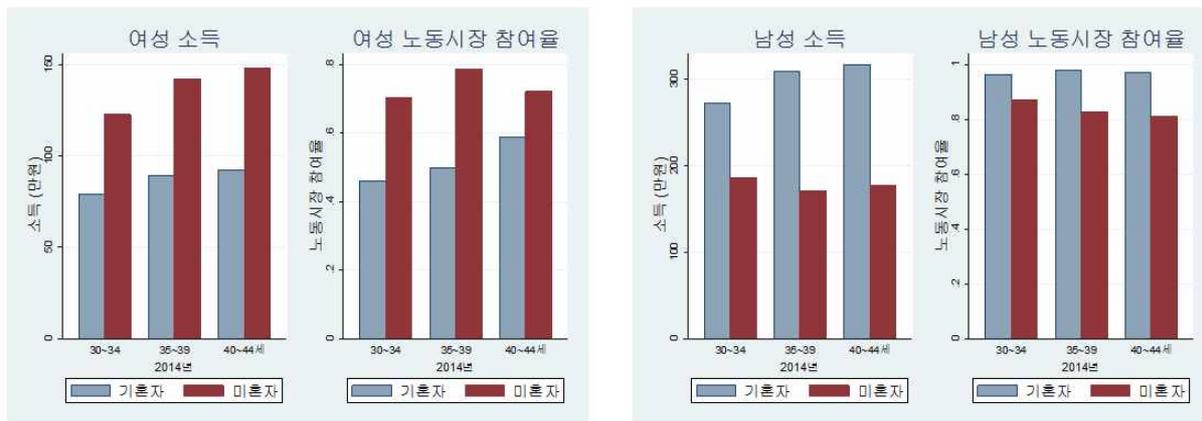
■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에서는 여성의 경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노동시장 참여율과 소득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과 반대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만 25~29세에 70%에 근접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0대에 50%대로 하락<sup>5)</sup>하고 있으며 이는 고학력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는 직접적 동기로 작용함.
-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여성은 고소득층일수록 결혼하기 어려운 사실은 결혼과 부부관계에서 남성은 경제력을 부담하고 여성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여전히 사회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4) 김영철 외(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이창순 (2012), 「한국사회 비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1〉 성별 미혼자·기혼자 비교



자료: 한국노동패널(2014).

■ 만혼·비혼 현상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측면이 크다면 기존의 출산 정책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 혼인 혹은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는 것이라면 고용과 주거 정책이 초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배우자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비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되지 못할 것임.
- 남고여저의 결혼문화와 남성은 경제력을 부담하고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초저출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
  -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성이 크게 늘었음<sup>6)</sup>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여성의 비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양육과 가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여전히 미흡하며 결혼에서 양성평등의 문화가 확산되지 못한 데서 기인함.
- 결혼시장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출산율 하락을 반영할 경우 중단기적 저출산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목표 출산율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6)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기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 취업에 대해 2006년에는 65.3%가 긍정적이었으나, 2009년 81.5%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